

전북대 학생들, 대만 국제발명전시회 '전원 수상'

LINC+사업단 프로그램 통해 우수 발명작 선별 출품 2개 작품 모두 특허 출원도 완료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2개의 학생팀이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9 대만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전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발명전시회는 대만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한 대회로, 중화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아시아권의 대규모 행사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아 한국, 폴란드, 태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800여건의 발명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는 LINC+사업단에서 운영하는 LINC+ 4step 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융합프로젝트 팀 '그늘아래' (팀장 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2개의 학생팀 '그늘아래'와 '카멜레온' 2팀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9 대만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출품한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태한 학생)과 창업동아리인 '카멜레온' (팀장 김상기 학생) 등 2팀이 출품해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다. '그늘아래' 팀은 폴란드발명진흥회로부터 특별상도 받아 2관왕의 영예를 차지하며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그늘아래' 팀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그늘막을, 카멜레온 팀은 양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롤 블라인드를 출품했다. 2개 작품은 모두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그늘아래' 팀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 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도 선정되어 기술 창업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늘아래' 팀의 김태한 학생은 "세계 각국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아이템의 현지 시장 개척 가능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LINC+사업단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전 직원 대상 제8차 감염관련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제8차 감염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주최한 이 교육은 지난 2월 13일 강제 채취 방법을 주제로 한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현 교수의 1차 강의를 시작으로 의료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강의(소아청소년과 조대선 교수), 진단기매개 전파 질환 강의(감염내과 이창섭 교수)에 이어 이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의(감염내과 황정환 교수)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강의를 통해 황정환 교수는 "각종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 모두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기자

전주교대, 산외초 찾아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실시

지역사회를 위한 정주교육대학교의 따뜻한 마음이 정읍시 산외면의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에 닿았다.

최근 전주교육대학교가 방문한 산외초등학교는 전체학생 수가 47명인 소규모 시골초등학교다.



이번 벽화그리기 행사에는 산외초등학교 전교생과 협동교사, 전주교대 학생뿐만 아니라 벽화그리기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올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기반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 지역사회기반 봉사활동은 전주교육대학교 구성원의 인성 및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동시에 도내 초등학교 양성 유일 국립대학으로서 지역민에 갖는 책무까지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덕치면, 섬진강 자전거도로 코스모스길 조성

임실군 덕치면 섬진강 자전거도로변에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화사하게 피어 마을주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문~물우마을 구간 자전거도로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이 함께 코스모스 모종을 심은 후 잡초제거·퇴비주기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다. 덕치면은 해마다 자전거도로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중, 원치, 구담, 가곡 마을 주민들도 함께 코스모스길을 만들어 코스모스 꽃길이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오고가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전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

대전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2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삼신 변호사를 전문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회장은 "건설업 관련 분쟁의 해결과 더불어 건설현장의 노무분야 업무까지 합리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원사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부안복지관, 실버장기자랑 경연대회서

백세바람평생아카데미 생활체조팀 우수상

부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섭)은 지난 1일 제21회 김제지평선 축제 전국 실버장기자랑 경연대회에 백세바람평생아카데미 생활체조팀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43개팀이 참여하여 경연을 펼쳤으며 어르신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고,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회에 참여한 생활체조 어르신들의 평균나이는 77세로 "열정 앞에 나이는 의미없다"며 밝은 얼굴로 참여 하셨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장, 시민들이 칭찬한 직원들 격려

남원시는 지난 2일 시장실에서 카카오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칭찬을 받은 직원 9명을 격려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남원시는 지난 4월 카카오톡 친절상담서비스 '친절남원'을 개설해 친절·불친절 민원을 항시 접수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있다.

남원시 홈페이지에는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한 저에게 두 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일처리 해주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등 칭찬 사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친절직원 모두 업무처리과정에서 각각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안겨 주어 시민의 칭찬을 받았다.

이원주 시장은 분기별로 칭찬받은 직원을 직접 격려하고 친절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접수된 칭찬사연을 모든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매우 친절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친절직원 격려 이외에도 전 직원 친절교육, 찾아가는 친절현장 코칭,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다각도로 친절행정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590-910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388-8874	남원지사 632-3938	고창지사 523-9899
삼천지사 010-2333-40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29-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94
홍주지사 010-9645-933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985	장흥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9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안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호웅'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다. 진안여중과 진안중학교 1학년 90여명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꿈을 키우고 깨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을 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중 하나로 농업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일차게 구성했다. 김필환 소장은 "앞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미래농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장애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기주도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